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Nature and Natural History

2025 가을호 제86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자연과 자연사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편집 | 학예연구팀 심예진 발행일 | 2025. 9. 17.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특별기획
- 어느 행복한 과학자의 삶
06 | 전문가 기고
- 우리는 모두 화성암이다.
09 | 기획전시
10 | 특별전시
11 | 주민참여전시
12 | 교육
14 | 새소식
15 | 어린이코너
16 | 관람안내

봄** SPRING

흔들리는 계절

여름

SUMMER

가을/// AUTUMN

WINTER 겨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CO-EXHIBITION
OF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5.10.01
-26.08.30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01 특별기획

어느 행복한 과학자의 삶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는 8월 6일, 최재천 교수(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모집 시작 20초 만에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으며,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을 위해 주요 내용을 전합니다.

"자연의 품에서 노는 게 그저 마냥 행복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자신을 '행복한 과학자'라고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잘 노는 아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나와 "오늘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다방구!"라고 외치며 놀이를 선언했고, 동네 아이들은 그를 따라 놀이를 즐겼습니다. 한번 나가서 놀면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가 그를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붙들어 두려 했지만, 친구들은 창문에 돌을 던지며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시골의 산과 바다, 서울의 남산과 한강을 누비며 뛰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좀비처럼 지친 얼굴로 출퇴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직업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시인으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장래 희망을 '타잔'이라고 써냈다가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장난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타잔을 무척 부러워했다고 회고합니다. 비록 영화 속 인물이었지만, 정글에서 살며 동물들과 지내고, 바나나를 따 먹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자유로운 모습은 그에게 천국의 삶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 우연히 참가한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개교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백일장에서 최재천 학생이 금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앞에서 그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며 "시인 최재천이 탄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자신이 시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후 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은 학생이 이공계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명이 '시인'이었던 그도 문과 0순위였지만 이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잘못된 것 같다. 제 별명이 시인인데 어떻게 이과입니까?"라고 항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많고 책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수학에는 유난히 약했습니다. 모의고사 수학 성적은 열 번 중 아홉 번이 20점대였고, 단 한 번 41점을 받은 것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반면 국어 성적은 안정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외출을 제한하자, 그는 집에 놓여 있던 '동아 백과사전'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아들이 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다양한 책을 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세계동화전집',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한국단편문학전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노오벨상 문학 전집'을 사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알렉산드로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의 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유독 얇았던 솔제니친의 책 뒷부분에는 수필이 번역되어 함께 실려 있었고, 그중 반 페이지 분량의 짧은 수필은 지금까지도 그의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 있습니다.

"... 가까스로 그 엄청난 공포에서 벗어난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모닥불과 개미」

그는 이 구절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를 잘 본 그는 첫 대학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지원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재수 후 다시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결심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던 중, 친구에게서 "최재천, 너 대학 붙었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과는 의예과가 아닌 동물학과였습니다. 동물학과를 지원한 적이 없었던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교에 확인했는데, "맞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2지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는 지원서의 2지망을 빈칸으로 제출했으나 담임 선생님이 동물학과를 적어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예과도 해부하고, 동물학과도 해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썼는데, 문제있냐?" 당시 동물학과를 졸업해도 일자리는 마땅치 않았고 사람들은 동물학과 학생을 보면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을 알려달라", "집에 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같은 질문을 던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덕분에 결국 그는 동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관련해서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상담을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가 매일 사슴벌레만 키우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해요.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제가 굶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교수님이 왜 굶으세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만큼 변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동물학 지식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그다지 재미있게 보내지 못하던 어느 날, 연구실에 한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외국인이 흔치 않던 시절, 연구생 모두 놀라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종이 쪽지를 꺼내 들더니 물었습니다.

"Who is 자에 춘 초에(Jae Chun Choe)?"

순간 모두 "중국인 학생도 없는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쪽지를 보니 바로 최재천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라고 답하자, 그 외국인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 편지는 1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떠난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쓰신 것이었습니다. 유타대학교의 조지 에드먼즈 교수님이 한국으로 곤충 채집을 오는데, 그의 조수가 되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교수님의 강의는 전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영어 강의가 흔치 않았지만 언어에 소질이 있던 그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교수님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고, 결국 이렇게 추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에드먼즈 교수님을 따라 전국의 개울을 돌며 하루살이를 채집하였습니다. 더구나 교수님은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머무는 동안 관광도 쇼핑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곤충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학자의 모습은 어린 최재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도대체 뭐하는 분이시길래 한국에 와서 관광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개울물에서 곤충만 채집하다 가십니까?" 교수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하루살이를 채집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있네. 한국은 102번째 나라일세." 사실 에드먼즈 교수님은 유타대학교 곤충학과 교수이자 하루살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I like you!" 사실은 "I want to become like you(당신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짧은 영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한 "I like you"뿐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OEFL, GRE, 1. Harvard, 2. Stanford, 3. Princeton… 9. Utah"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미국 유학을 결심한 그는 결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을 바꿀 학문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ociobiology란, 일개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는 그 이유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는 몇 주 동안 수업을 들은 뒤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걸 공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수업에서 접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그의 삶을 뒤흔든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유전자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에 합격하며, 연구실을 얻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지 에드먼즈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조지 교수가 쪽지에 적어준 '가장 좋은 대학, 가장 배우고 싶은 교수'의 1순위였고, 최재천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설명해야 하는 과학자인 그는, 그가 한참 방황하던 시기 100개국을 여행하던 에드먼즈 교수님이 왜 하필 그 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신 건지. 왜 학회의 복도에서 "나 다음 달에 한국가요"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건지, 그 옆을 또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은 지나가시면서 한국 얘기를 듣고 서로 아는 사이

도 아닌데 “한국 가세요? 제가 소개할 만한 조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본인을 소개하신 건지... 이런 모든 우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방황하던 젊은 그의 앞에 에드먼즈 교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최재천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본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지 에드먼즈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교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 되기를 바라며, 대기업에서의 강연 대신 충정도 산골의 한 학교에서의 강의를 택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한 산골 아이의 “교수님 덕에 삶의 목표를 찾았다.”는 메일 한 통보다 삶에 큰 보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끝 무렵에 그는 학부모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너무 잘나가는 분야에 아이를 줄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잘나가는 분야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잘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미국에 곤충 공부하러 간다고 하자, 다들 ‘우리 뒷산에도 벌레 많은데 왜 가냐’며 만류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며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잘나가는 분야가 20~30년 뒤에도 유망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그 길을 지지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 분야가 각광받을 때, 이미 그 아이는 누구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미래를 감각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20~30년 전 본인의 대학 시절 경험으로 아이의 꿈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아침에 눈만 뜨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아이의 꿈을 부모가 함께 키워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글, 그림 : 김동영

이번 강연은 과학자의 길을 넘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와 독서, 우연한 만남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은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과학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확신을 전하며,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 전문가 기고

자연사 속 암석 이야기 제1편

우리는 모두 화성암이다.

이승배 박사(고생물학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저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찌꺼기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원자번호 3번 리튬부터 26번 철까지는 태양과 같은 항성의 핵융합에 의해, 원자번호 27번 코발트부터 94번 플루토늄에 이르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집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에서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우주 만물은 모두 별 먼지에 들어 있던 원소의 화학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 자체, 지구의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우주에서 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외계인인 셈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지구 규모, 즉 자연사 차원으로 ‘축소’해 보고자 합니다.

45억 6천만 년 전 탄생했을 때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미행성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열 때문에 최초의 지구는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때의 지구를 ‘마그마 바다’라 부릅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미행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마그마 바다는 점점 식어갔고, 어느 시점에 드디어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암석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암석은 과연 언제 만들어졌으며, 무엇이었을까요.



▲ 지질박물관에 전시된 아카스타 편마암 표본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캐나다에 있는 아카스타 편마암(Acasta Geniss)으로 약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석은 원래 화강암, 현무암과 같은 화성암이었습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식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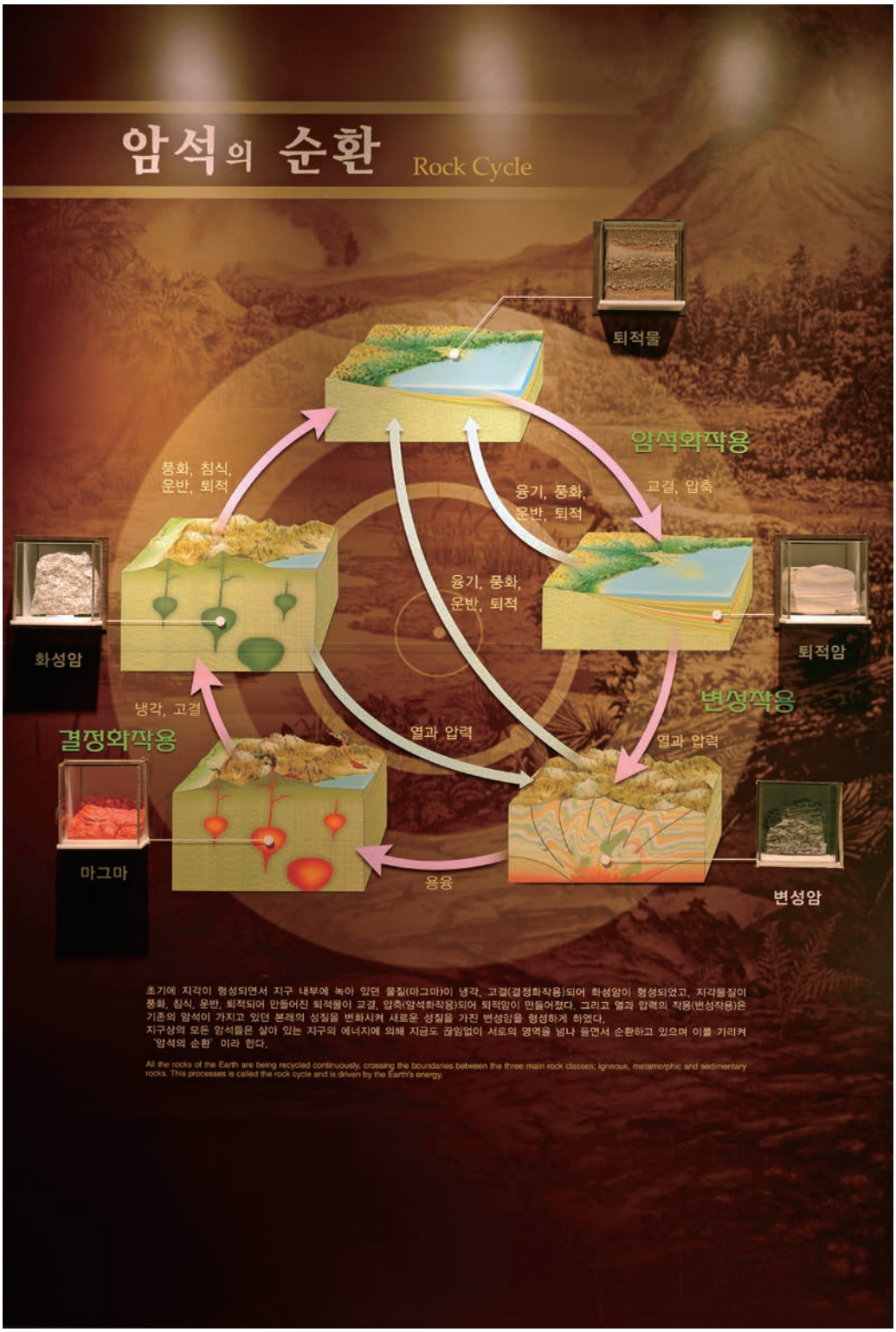
서 만들어졌으니 최초의 암석이 '화성암'이었던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마암으로 불린다는 것은 암석이 만들어진 이후 여러 차례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작용을 받아 변성암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암석은 그 성질과 모습이 변합니다. 지구 최초의 암석은 화성암이었습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그 마그마 안에서 석영, 장석, 각섬석 등 다양한 광물이 자라나고 그 광물들이 서로 맞닿으며 액체 성분이 빠져나간 단단한 돌덩어리가 바로 화성암입니다. 암석은 단단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맨틀이 서서히 대류하며 지각을 움직였습니다. 어디에선가는 마그마가 지표 아래서 굳거나 지표 위로 뿜어져 나오며 새로운 암석을 만들고(화성암), 다른 곳에서는 지하의 암석이 지상으로 솟아오르거나 지표의 암석이 지하로 가라앉아 새로운 암석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변성암). 열과 압력이 충분히 높은 곳에서는 암석이 마그마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액체인 마그마가 고체인 암석으로 변할 때나 지하의 암석이 얕은 곳으로 상승할 때 수반되는 부피 변화, 또는 대륙이동에 의해 암석이 받는 수평적인 힘, 계절의 온도차 등으로 인해 암석에 균열이나 틈이 생기고 암석은 잘게 부서져 갔습니다. 한편, 흐르는 물이 암석을 깎고(침식), 물과 돌이 반응하여 새로운 광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화학적 풍화). 부스러지거나 풍화된 암석의 조각 또는 가루는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다져져 다시 단단한 암석이 되었습니다(퇴적암). 물과 반응하여 암석에서 녹아 나온 원소나 이온들은 호수나 바닷물에 모였고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침전한 결과 새로운 퇴적암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살아있다고도 표현합니다.

극적으로 단순화했지만, 이 설명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지질학의 주요 원리인 판구조론, 암석의 순환, 동일과정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지질학적 과정은 어디선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척도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화산, 지진, 홍수, 산사태 등의 현상을 통해 알아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 척도에서 '최근'에 생물이 등장해서 지구 환경을 바꾸어 놓았지만, 지구 표면의 끊임없는 변화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태어난 생물도 죽으면 다시 원소가 되어 다른 암석이나 생물체로 재활용되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이 모두 별의 찌꺼기라는 생각의 흐름을 지구 규모로 축소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고체 형태 지구의 최초 구성원은 화성암이었고, 화성암으로부터 변성암, 퇴적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암석에서 추출된 원소들이 강물을 따라 바다로 모여들었고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진화와 멸종을 거듭하는 중에 인류도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화성암입니다.

'자연사'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서구의 유서 깊은 자연사박물관들이 포괄하는 연구와 전시의 범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연사란 '지구의 역사'로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자연사박물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을 보더라도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고생물학, 천문학을 연구하며 암석 · 운석, 광물, 화석의 전시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모두 화성암'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런 결론을 제시했지만, 이 자연사박물관들은 지구 역사에서 암석과 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다세포 생물이 본격적으로 지구에 등장한 때가 약 6억 년 전이라면, 그 이전 약 40억 년 동안의 지구 역사는 암석과 광물의 역사, 즉 암석과 광물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자연사입니다.



▲ 지질박물관에 전시된 암석의 순환

암석(석기)을 바탕으로 급속히 문명을 발전시켰던 인간이 언제부턴가 암석과 광물을 생소하게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은 지구과학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암석과 광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있고, 여전히 거의 모든 자원의 원천이며, 예쁜 것, 아주 오래되거나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공룡의 학명을 외우는 어린이들을 보면,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은 궁금증을 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암석과 광물에는 저마다의 길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독자들께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오셨을 때 지구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인 암석과 광물들에게 한 번의 눈길을 더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필자 소개

이승배 박사(고생물학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한 화석을 포함하여 스타일로포라 극피동물 연구로 석사학위, 우리나라 후기 캄브리아기 삼엽충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사로 자연사관 전시·교육을 담당한 바 있다.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에서 김포-인천 지역 지질조사를 통해 지질도를 발간하였고, 동 연구원 지질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질박물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금도 지질박물관에서 전시 업무 외에 느리지만 우리나라 삼엽충과 스타일로포라 극피동물을 연구 중이며, 그들이 묻혀 있는 전기 고생대 퇴적층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땅 돌 이야기」(2020, 나무나무), 「한국의 지질유산: 삼엽충」(20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다.

03 기획전시



2025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봄-여름-가을-겨울 : 흔들리는 계절』

- **기　　간** : 2025. 10. 1.(수) ~ 2026. 8. 30.(일)
- **장　　소** : 2층 기획전시실

전시설명

2025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지구는 약 5,600만 년 전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시기를 겪었지만, 당시의 변화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불과 150년 만에 지구 평균기온은 1.1℃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까지 최대 6.3℃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은 전 세계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며,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존재는 인류가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구의 기후 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점점 흐려지는 사계절의 경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변화의 한가운데 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04 특별전시



2025년 제2차 특별전시

『작은 섬 아래, 큰 세상』

- **기　　간** : 2025. 8. 2.(토) ~ 2025. 11. 2.(일)
- **장　　소** : 1층 특별전시실

전시설명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 해역의 수중 생태를 담은 다이버들의 사진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저 지형과 해양 생물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준비했으며, 약 40점의 수중 사진과 해양 생물 표본, 독도 강치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선보입니다.
작은 섬 아래 펼쳐진 거대한 생명의 세계를 직접 만나며, 울릉도와 독도가 지닌 자연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차 특별전시

『알록달록 우리는 물고기반입니다』(가제)

- **기　　간** : 2025. 11. 11.(화) ~ 2026. 2. 22.(일) (예정)
- **내　　용** : 해양 환경 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제주의 바닷물고기 다양성을 소개하고, 자발적으로 관찰·조사하는 전문 시민과학 활동 소개

05 주민참여전시



2025년 제2회 주민참여전시

『초록으로 이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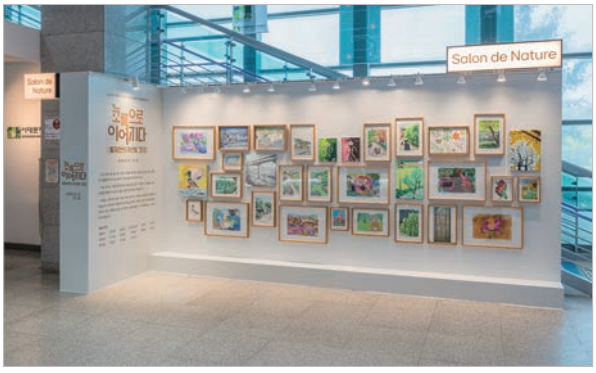
- **기　　간 :** 2025. 8. 12.(화) ~ 2025. 10. 26.(일)
- **장　　소 :** 1층 중앙홀, 살롱 드 네이처(Salon de nature)

전시설명

도심 속에서도 숨 쉬는 초록, 서대문.
홍제천의 물결, 안산의 바람, 골목 사이의 들풀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연과 함께 걷고 살아갑니다.
이번 전시는 '열린공간연희'를 중심으로 모인 서대문구 이웃들이 동네 자연을 관찰하며 느낀 인상을 그림으로 담아낸 자리입니다.
세대는 달라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초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자의 감성으로 그려낸 그림 속 자연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과 일상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여 작가

김려아 김미정 김선숙 도일 오드리 문재이 박선희 여미정 이건욱
이아연 이지형 장준경 전소향 정수림 최은미 최지영 최지유





2025년 제3회 주민참여전시

『도시 위의 날개』(가제)

- **기　　간 :** 2025. 11. 4.(토) ~ 2026. 2. 1.(일) (예정)
- **내　　용 :**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새 탐조 동아리의 기록과 활동을 아카이빙한 전시

06 교육

9~11월 조류세밀화 교실

- **교육대상 :** 성인 12명
- **교육내용 :** 그림의 대상으로서 새가 갖는 매력을 느끼고 여러 종의 새를 그려보는 과정
- **모집일정 :** 2025. 8. 26.(화) 10:00 ~ 선착순
- **교육일정 :** 2025. 9. 5.(금) ~ 11. 21.(금) 총 10강
- **교육시간 :** 10:00 ~ 12:00
- **장　　소 :** 세미나실
- **수 강 료 :** 250,000원(10강 연속 수강)

※ 수업에 필요한 도구(종이, 물감, 붓 등)는 모두 제공됩니다. 문의 02-330-8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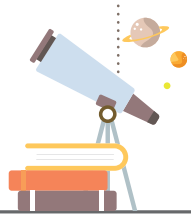
9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과학도구(현미경, 망원경) 사용법을 교육한 후 관련 과학도구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홀수달 셋째 주 토요일 운영)

- **교육대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2~4명/가족)
- **교육내용 :**
  - 현미경, 작은 세상을 살펴보는 과학도구: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밤하늘 관측 과학도구: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5. 9. 8.(월) 11시 ~ 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5. 9. 20.(토)
- **교육시간 :** 2시간[14:00-16:00, 19:00-21: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가족

※ 문의 02-330-8863





9월 가족과 함께하는 달보기

천문교육과 달 관측 체험을 통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 연 4회 운영)

- **교육대상 :** 초등학생 포함 가족
- **교육내용 :**
  천문강연, 천문공작, 천체관측, 천문시뮬레이션 등
- **모집일정 :** 2025. 9. 15.(월) 11시 ~ 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5. 9. 30.(화) 19:30~22:00
- **교육시간 :** 150분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및 주차장
- **수 강 료 :**
  20,000원/인(연간회원 16,000원, 구민회원 13,000원)

회원구분 / 인원	일반회원	연간회원	서대문구민 연간회원
2인 가족	40,000원	32,000원	26,000원
3인 가족	60,000원	48,000원	39,000원
4인 가족	80,000원	64,000원	52,000원

※ 문의 02-330-8863



9~10월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 (2025 하반기)

- **교육대상** : 성인 및 청소년 누구나 60명
- **교육내용** :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총 5강)
- **모집일정** : 2025. 9. 16.(화) 10시 ~ 마감 시
- **교육일정** : 2025. 9. 24.(수) ~ 2025. 10. 30.(목)
- **교육시간** : 19:00 ~ 21:00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 문의 02-330-8871

10월 박물관 투어

- **교육대상** : 유치부 6세~초등6학년
- **교육내용** : 10과목 12강좌
- **모집일정** : 2025. 9. 19.(금) 10시 ~ 마감 시
- **교육일정** : 2025. 10. 18.(토) ~ 10. 26.(일)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 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5교육실 및 전시장
- **수 강 료** : 16,000원(1인)
  [일반 연간회원 11,000원, 연간 구민회원 10,000원]

※ 문의 02-330-8873

10월 엄마랑 아빠랑 책이랑 친구하기

- **교육대상** : 5세~8세 어린이를 포함한 20가족
  (2020년생~2017년생)
- **교육내용** : 가족과 함께 유아 과학도서
  《이 책을 핥지 마세요》를 읽어봅니다.
- **모집일정** :
  (구민) 2025. 9. 30.(화) 10시~
  (일반) 2025. 10. 2.(목) 10시~
- **교육일정** : 2025. 10. 11.(토)
- **교육시간** : 10:00 ~ 11:00
- **수 강 료** : 무료(박물관 입장료 별도)

※ 문의 02-330-8871





10~11월 생명다양성재단과 함께하는 정기강연

- **교육대상** :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60명
- **교육내용** : 생물다양성과 기후환경을 주제로 실천 생태학을 강연
- **모집일정** :
  - 10월 강연 : 2025. 10. 17.(금) 10시~
  - 11월 강연 : 2025. 11. 21.(금) 10시~
- **교육일정** :
  - 10월 강연 : 2025. 10. 24.(금)
  - 11월 강연 : 2025. 11. 28.(금)
- **교육시간** : 15:00 ~ 16:30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박물관 입장료 포함)

※ 문의 02-330-8871

07 새소식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현대백화점 신촌점 제휴 혜택 안내

제휴기간(1차) : 2025년 9월 5일 ~ 2025년 12월 31일

현대백화점 신촌점 영수증으로 박물관 입장료 20% 할인

1.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2.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문
3. 영수증 1매당 2인의 입장료 할인

박물관 입장권 제시 시, 현대백화점 무료 음료 증정

1. 박물관 입장권 1매당 무료 음료 2잔 증정
2. 입장권 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백화점 방문
3. (무료 음료 제공 장소) 현대백화점 신촌점 본관 Cafe-H

[자원봉사자 모집] 북파크 책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책책 읽기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접수기간 :** 2025.11.1.(토) ~ 2025.11.30.(일)
- **활동시간 :** 주 1회, 일 4시간(화~금, 13:00~17:00)
- **활동장소 :** 자연사박물관 3층 북파크
- **하는 일 :**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기, 북파크 운영지원
- **자원봉사자 혜택**
  -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인증서 발급(1365포털)
  - 자원봉사 교육 진행
  - 북파크 도서 대출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접수방법 :**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 문의 02-330-8871



토종씨앗도서관 운영

- **9월 : 경기참밀, 10월 : 순천유채, 11월 : 검정완두**
- **응모기간 :** 매월 1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 **추 첨 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추첨영상 유튜브 업로드 및 당첨자 개별 연락)
- **추첨인원 :** 20명
  (씨앗과 함께 재배 및 채종 방법 동봉하여 우편발송)
- **반납방법 :** 씨앗을 심어 기른 후 채종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

※ 문의 : 02-330-8858

당첨자 확인 ▶

※ 박물관 1층 토종씨앗도서관에 응모해주세요.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토종씨앗을 대출해드립니다.
씨앗을 잘 키워 채종하여 반납해주시면 씨앗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08 어린이코너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골든벨 1

다음 골든벨도 기대해 주세요~

3층_지구환경관

이 이론은 1920년대 러시아의 수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이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우주는 하나의 시작점에서 발생한 대폭발 이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초기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집된 상태에서 급격히 팽창하며 식어간 과정을 보여주는 전파 신호, '우주배경복사' 등이 있습니다. 대폭발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정답> □□ 이론

2층_생명진화관

지질시대 중 백악기 대멸종 이후 시작된 이 시기는, 포유류와 조류는 물론 곤충과 꽃식물이 크게 번성하여 생물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대륙이 지금의 형태로 재편되고 산맥이 형성되면서 기후가 점차 한랭해졌습니다.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인류는 이 시기 후반에 등장하여 도구를 사용하고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고진기			신진기		제4기	
팔레오세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리오세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고생대, 중생대를 지나 여기는 ○○○

<정답> □□□

1층_인간과 자연관



생태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이를 먹는 소비자,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무기물로 바꾸는 이 존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분해된 물질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어 생산자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며, 생태계의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섯, 지렁이, 곰팡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연 생태계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정답> □□□

기획 및 제작: 김보정, 유승진

정답은 옆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09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 홈페이지 참고(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관람료)

전시해설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화 · 수 : 오전11시 / 목 · 금 : 오후2시
  주말 · 공휴일 : 오전 11시, 오후 2시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홈페이지-관람안내-박물관일정표'에 보시면 어린이도슨트의 활동시간과 활동코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슨트 박물관일정표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연간회원).

카카오톡채널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보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카카오톡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11:30 ~ 19:00)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